

34대 총학 12개 공약 중 3개만 이행… 더욱 분발해야

총학축, 재정 감소로 공약 이행 어려움 토로 학우들, 미시행 이유 의문제기… 불만표출도

2016년 11월 23일, 제34대 S-ENRGY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63.8%의 찬성률로 보이며 당선됐다. 당시, 총학은 12개의 공약을 내세웠고 당선 소감으로 “겸손하게 학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참여 공약 제도 ▲목포대 지킴이 ▲공약 이행률 개시 ▲흡연자와 협연자 모두의 권리 보장 ▲실속 있는 어플 ▲俸나바스 환경 개선 ▲소운동장 전디 설치 ▲복지 시설 확대 및 보수 ▲목포대학생 체류 혜택 확대 ▲S-ENERGY POINT ▲대규모 공동 구매 시장 ▲기숙사 택배 보관함 설치가 있다.

1학기가 끝나가는 현시점, 총학의 활동 및 공약 이행실태와 주요 학내 사안에 대한 대응을 짐작하고자, 지난 1일 후문 한 카페에서 서원(원예과과-11) 회장을 만났다.

먼저, “총학생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서원 회장은 “대다수 학우는 학교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 그에 대한 대변인이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다음은 “총학에서 약속한 12개의 공약 중 이행된 공약은 무엇인 있는가?”에 대해서 서 회장은 “▲참여공약 제도 ▲대규모 공동구매 ▲목포대학생 체류 혜택 확대”이다. “고 답했다.

“▲미이행된 공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 회장은 “▲목포대 지킴이 같은 경우, 아직 학생순찰대는 지금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된 세부 공약은 나머지 공약은 2학기에 이행될 것이다.”고 속삭였다. 또

한, “올해 국가재정 지원사업의 내용 등으로 미이행된 것 같다. 원래 미 대화문화 예산이나 감축되며, 대학 소속 모든 부서가 작년 대비 15~17%로 예산이 감축됐다. 총학도 이와 미연가지로 1년 재정이 6천만 원으

로 감소해, 공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서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현재 이행된 공약이 3개, 미이행 공약이 9개인 것이다. 미이행 공약은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보이는 것처럼 그중 2개는 실행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내년에 시행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총학이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 사 회학과대학에 제작 중인 「학우는 「실직적으로 총학에서 이뤄진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또 공약 이행률을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당연한 것 아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공약 중 품나바스 환경 개선이 있는데, 통화하는 입장으로서 작년보다 버스도 많이 줄이고 개선된 게 없어 보인다.”라고 답했다.

인문대학에 재학 중인 박화우는 “총학 공약은 대부분이 돈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나 그중 소수에는 예산으로는 가능한 것도 있는데, 1학기가 끝나는데도 시행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총학 공약이행에 대한 학

34대 총학생회 공약 이행 현황

	참여공약 제도	○
일상 복지	동학버스 환경 개선	×
혜택	복지 시설 확대 및 보수	△
	대규모 공동 구매 시행	○
	소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
	목포대학생 체류 혜택 확대	○
	S-ENERGY POINT	△
	실속 있는 어플	△
기타	목포대 지킴이	△
	공약 이행률 개시	△
	흡연자 협연자 권리 보장	△
	기술사 택배 보관함 설치	△

*○:이행 △:미이행 ▲:논의 중 X:미이행

우의 의견은 비판적이었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많은 학우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이다. 학교 내 동학버스 문제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꾸준히 일하겠다. 무분별한 비난보다는 비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많은 목소리가 나오는 △총학 예산 문제에 대해 서 회장은 “8월 오후 3시, 풍리자 80 소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김은혜 기자 yan20@naver.com

목포대, 새 정부 대학정책 변화 대비 선제적 대응 나서

본부 보직자·실과장 참석 리더십 향상 워크숍 개최

목포대학교는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영광에 있는 힐링컨벤션센터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립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새 정부 고등교육 정책방향과 대학의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7년 목포대학교 파·실장 리더십 향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목포대 총장, 조봉래 사무국장을 둘 본부 보직자 및 각 행정부서 실·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 특강(‘대학 혁신 및 변화에 대응한 우리의 자세’) ▲시무국장 기조연설(‘새 정부 대학정책 변화’), ▲기획평가과장 주제발표(‘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주요 내용’) ▲종합보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날 풍광은 특강에서 “미래사회와의 변화에 대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리자와 리더십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새 정부를 맞아 체육으로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이 변



지난 5월 18일부터 이틀간 영광 힐링컨벤션센터에서 ‘새 정부 고등교육 정책방향과 대학의 선제적 대응 방안’ 주제로 ‘리더십 향상 워크숍’이 열렸다.

화와 혁신을 통한 대학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을 주관한 조봉래 사무국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한 교육체계의 수립 등 대통령 주요 과제사업과 함께 OECD가 보는 한국의 고등교육 방향, 대학구조개혁 추진 전망 등을 관해 설명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심준식 기획평가과장은 대학임시 간소화, 대학 글로벌 경쟁력과 체계적 강화, 대학 재정구조 개선과 협력 등에 대해 대비한 TIP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대

정책방향에 대한 대학의 대응전략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장을 통하여 논의의 결과는 향후 대학입시 제도의 단순화 및 공정성 강화, 국립대학의 자발적 고등 교육 혁신체계 넓은 구축과 기능별 (연구중심·교육중심·직업중심 등) 특화, 대학평생학습사업 개편 등에 대비한 TIP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과제별로 주관부서를 선정해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정규 기자 akwidt887@naver.com

솟구치는 저 물줄기처럼…

성학(城河)의 문턱 6월 초입니다. 시나브로 교내의 수목들이 옷 색깔이 짙어져 가면서 본래의 색인 어여미 시작했다.

여름은 절음의 계절이다. 절음은 다른 의미는 도전이다. 이 절은 날을 꿈도 열정도 폐기로 없이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도전하라 꿈을 향해.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저 물줄기처럼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바람 저라도 후회없이…

6월 도림관분수대에서
(민설부)



지난해 목포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시작한 '777좌석 기부제'가 누적 참여자 150여명을 기록하는 등 인재사랑 발전기금 기반이 축을 잊고 있다.

목포대, 인재사랑 발전기금 기탁 줄이어 777좌석 기부제 통해 지역인재 '꿈Up 희망Up'

목포대학교가 지난해 개교 70주년을 맞아 신설한 '777좌석 기부제'를 통해 인재사랑 발전기금 기반이 이어지면서 대학가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777좌석 기부제'는 지난해 목포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2016년을 시작으로 100만원 이상 개인 또는 단체명의 기부자에 대해 70주년 기념관 내 대강당 777개의 좌석에 기부자 명의의 명판을 순차적으로 부착하는 기부제도다.

또한 목포대 '777좌석 기부제'는 단순히 발전기금 기부를 넘어서 기부자의 솔직한 뜻을 세상에 넓힐 알리고 기부의 의미를 지역인재 사랑의 소중함을 스토리를通아내고자 마련됐으며 교직원, 동문,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제도다.

현재까지 '777좌석 기부제' 누적

참여자 수는 총 150명이며 올해까지 누적 2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뿐 아니라 조봉래 사무국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이재정 재경동문회장을 비롯한 동문들의 텁레이 참여가 이어지면서 교교와 학생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포대 죽현동 기획처장은 "화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대학재정의 어려움이 기증되는 현실 속에서 '777좌석 기부제' 등을 통한 발전기금 기부 참여는 지역대학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며 "'777좌석 기부제' 등 스토리가 있는 기부제 참여를 통해 지역의 인재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의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다각적 사고 함양 위한 융합캠프 개최

목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는 5월 26~27일 70주년 기념관에서 융합동아리 참여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각적 사고 함양을 위한 융합캠프'를 개최했다. (사진)

융합동아리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생들이 서로의 전공 능력을 응집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구현 및 발표하는 프로그램으로 목포대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는 매년 학생들을 모집·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특성화 융합교육 (랩스터 로봇·코딩교육, 아두이노 활용 공기청정기·제작기 등) △창의융합특강 △아이디어 멘토링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캠프활동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 발표와 멘토링을 통하여, 사회·환경·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견고한 주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



특히, 캠프 기간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다학제 캡스톤디자인 주제로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교수와 산업체 전문가는 사회환경적 문제 분석, 문제 해결 방법 도출, 산업체적 관점을 지도하고 공유했다.

김민수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인문소 양 융합형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 융합동아리를 12월까지 운영한다. 박종규 기자 akwridrb89@naver.com

WISET 목포대사업단, 문마옥 국회의원 초청 특강

WISET 전남지역 목포대사업단은 지난 5월 30일 16시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목포대 교직원 및 이공계 재학생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민주·문화미육 국회의원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WISET 전남지역 목포대사업단이 새로운 시각을 알리는 자리로서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진출촉진사업' 목표와 방향을 함께 나누고, 향후 5년간 전남지역 이공계 여성 대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특강에서 더불어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부총무원 문마옥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파거와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본인의 대학생들과 여성과학기술도를 선택한 이유와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여성 공학도로서의 블로그를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한 이공계 여성 대생들은 '공학도로서 여성들이 겪을 불안감에서 조금은 해소가 되는 기분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말했다.

박종규 기자 akwridrb89@naver.com

WISET 전남지역 목포대 사업단은 2017년~2022년까지 5년간 R-WeSET 사업으로 신규 진선원과 함께 전략산업기반 실무 융합형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을 위해 맞춤형 진로설계 On-Off line 멘토링 뿐만 아니라 멘토십 티렉 전공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박종규 기자 akwridrb89@naver.com

짤·막·소식

2017년 총유학생회 회장에 조가명 학우 선출

국제교류교육원은 지난 5월 18일 국제교류교육원 2층 로비에서 2017학년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끌 제2대 총유학생회장 선거를 했다.

이번 선거에는 총 3명의 후보(종국인 유학생 2명, 네덜란드 유학생 1명)가 등록되었으며 목포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간의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후 진행됐다.

선거 개표결과 제2대 총유학생회장으로는 중국 국적의 조가명 (Cao JiaMing, 경영학과 석사과정) 학생이 당선됐으며 2017년 6



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목포대는 지난 2010년 제1대 유학생회장 선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년째 유학생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akwridrb89@naver.com

제27회 의류학과 졸업작품 발표회 개최

의료학과는 5월 23일부터 3일 간 교내 70주년 기념관에서 'Brilliant Spirit'을 주제로 제27회 목포대학교 의류학과 졸업작품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의류학과 졸업생 전원이 4년 동안 학과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제작한 'Read y to wear' (기성복) 19점과 'Fashion Art' (패션아트) 19점 등 총 38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최일 총장은 '졸업작품 발표회는 의류학과 졸업생들이 4년간의



배움을 작품으로 완성하는 의미 있는 행사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불사른 열정을 산업계에 쏟아부어 한국패션산업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정규 기자 akwridrb89@naver.com

제35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 성료

국어국문학과에서는 5월 24일 70주년 기념관 및 한내 일원에서 제35회 전국고교생백일장'을 개최했다.

1983년부터 시작하여 3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국 10개 고등학교에서 21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분야별 1, 2, 3등 상 각 1명, 지

도교사상 1명, 각자 5명, 장려상 10명 등 총 37명이 상을 받았는데, 시상 1등 상은 고양미술고등학교 3학년 김민지 학생, 신문부 1등 상은 예산여자고등학교 임가인 학생이 수상했다. 지도교사상은 양명여고 허민정 선생이 수상했다. 아울러 1~3등 상 수상자에게는 전국 대학교 특기자 전형지원이 가능한 특전이 부여된다.

박정규 기자 akwridrb89@naver.com

◇ 성공하는 창업동아리 무엇이 다를까?

학생주도·팀 빌딩·목표 수립, 창업동아리 성공 키포인트

청년창업, 취업지옥 탈출 대안으로 부상
성공창업 위해 창업동아리 적극 활용을

>>> 창업동아리는 학생주도형으로 운영하라

대한민국은 지난 4월 혁신실업을 11.2%로 얹어 최대 청년 실업률을 수준을 기록했다.

일자리 문제로 취업난이 계속되고, 정부에서는 대학생 대상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창업동아리로, 창업동아리 목적으로 학생들이 모여 동아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창업동아리들은 많지 않다. 아이디어 구축 초기 단계에서 포기하는 팀들이 하다하고, 사업운영 결과물도 없이 설문설정 지원금만 촉구하는 동아리도 있으며, 사업 발전 가능성 없이 소규모 시장에만 머물러 있는 동아리들도 있다.

물론 모든 동아리가 그런 것은 아니다. 목포대학교 창업 우수자 DNA 선발자 상위권으로 선정된 A군은 인터뷰에서 “창업동아리는 대학생들에게 필수라고 권하고 싶은 정도로 많은 경험과 대외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스펙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성공하는 창업동아리는 무엇이 다른가? 청년 스타트업 3년 차 경력을 바탕으로 한 목포대 학생들의 성공적인 창업동아리 운영을 위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창업동아리들이 교수의 주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교수와 학생의 의견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실제 경영을 해본 교수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이 모두 맞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0대는 기성세대들보다 월씬 변화에 민감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많이 접한다. 이로 인해, 허무맹랑하게 느끼는 대학생들의 생각이 오히려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물론 기성세대의 장점도 있을 수 있다. 교수의 인맥으로 납품 경로를 확보하는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둘째는 교수의 창업동아리이자 학생들의 창업동아리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영화 대사가 하나 있다. 영화 ‘베테랑’에서 나오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이다. 대학생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열정과 패기이다. 창업동아리에서 일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학생이 직접 창업을 주도하며 깨닫는 ‘경험’이다.

가장 이상적인 창업동아리의 형태는 학생 주도형으로 운영해나가고, 교수는 피드백만 주는 것이다. 교수가 일원이 솔직으로 떠먹여 주는 행태는 학생에게 이례서 한 줄을 더 채울 수는 있겠지만, 직접 부딪히며 겪는 기회의 시행착오와 같은 인생의 값진 경험을 얻기는 힘들다.



청년들의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전남도가 주최한 ‘제17회 대학 벤처동아리 경진대회’가 지난해 9월 순천대학교에서 열려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팀 빌딩은 창업동아리의 전부이다

성공적인 창업의 필수형태 3가지는 아이템, 고객 그리고 사람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라 창업을 하는 팀원을 말한다.

대학생이 특정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갖고 차별화된 기술집합을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드물다. 대학 창업동아리를 이루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발상일 수 있다. 일을 잘하는 것과 생활이 맞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팀 빌딩 시, 너무 많은 인원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경영자인 미국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의 ‘피자 두 판의 법칙’에 따르면, 팀원을 수나 회의에 초과하는 사람의 수가, 피자 두 판으로 시사를 마칠 수 있는 규모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IBM이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는 컴퓨터 모델 ‘AS400’은 회사 내 소수로 이뤄진 개발팀에서 만들었고, VisaCal 스프레드시트 역시 2명의 개발부서 직원이 개발한 사례가 있다.

인원이 적을수록 여러 명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고, 그룹이 작으면 개인의 행동이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지양해야 한다.

사람들은 실리적으로 옮을 사람은 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원이 적을수록 자신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나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생이 높은 사람을 무작정 팀원으로 영입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수업 출석은 물론 성적 관리를 엄심히 하는 사람은, 창업동아리에서 배정 받은 일보다 자신의 학업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아, 창업동아리 진행에 무관이 있을 수 있다.

학점에 연연하기보다 자신의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팀 전체에 집중력을 옮겨주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다.

>>> 목표를 최대한 세분화하라

실패하는 창업동아리들은 대부분 빙대한 목표 설정을 한다. 꿈은 크게 꾸되, 눈앞의 목표는 최대한 세분화하고 명확한 목표부터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물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 아이템 개발 목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절 팔리는 예쁜 모자’가 아니라 ‘식물성 유기농 원단에 한 이끼 옷’과 같이 주요 이동대상과 차별화된 기능이 부각되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내 아이템은 남녀 노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폐기의 지름길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매일같이 수많은 개발자들과 그들의 판매 상품들이 생기고 있다. 무한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끝없이 차별화를 강구해야 한다.

차별화 된 목표 고객을 또한 중요하다. 커피전문점을 예로 들어보자. ‘베타방’은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 20대 학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커피 ‘오카다’는 강경을 생각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전통 한방차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같은 일정이라도 세분화된 시장에서 명확한 목표 고객을 선택해서 집중공략하는 것은 이를 경영학에서는 ‘STP 전략’이라 부른다. 소자본으로 학생이 모여 시작하는 창업동아리 수준, 세분화된 시장에서 작은 목표부터 실행해나가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명 ‘헬조선’이라 불리며,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취업 전쟁이라 일컬으며, 대학 이시람과 같은 스트레이트 졸업이 되어 있는 지금, 창업은 어찌 보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창업은 매력적인 일일이 분명하다. 창업동아리는 실전 창업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외활동이다.

실사 창업을 목표로 하더라도 창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체화하는 것만으로도 그 경험은 충분히 값진 자랑분이 될 것이다. 남을 다 하는 스며들기가 아닌 자신의 스모리가 있는 스페를 원한다면 창업에 도전해보아도 좋다.

이전술 책임기자
(영무사이트리더님센터 대표)
chan.cs@naver.com



◇ 주식! 너는 누구나

'고위험·고수익' 주식투자 아는 만큼 안전하다



코스피가 2,290.65로 점을 마감한 지난 달 15일 오후 서울 모 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주식투자에 성공하면 이익을 보지만, 실패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올바른 투자방법은 무엇일까. 현재 20대 청년은 주식이나 재테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꽃이자 불리는 주식시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투자방법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식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증권을 사고파는 투자 활동'을 의미한다. 혼불 투자만을 주식투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대상은 상장주식이 될 수 있고, 비상장주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코스피 및 코스닥 등의 주식시장에선, 상장주식만이 매매할 수 있게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의 매매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영업장에서 주문하거나 주식 브로커 등을 통해 매매했으나,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로 컴퓨터를 이용한 직접 투자가 늘었다. 그리고 매매의 편의성으로 단타 매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 주식투자 종류에는, 장기투자와 단기투자가 있다. 장기투자는 우량주를 매입하여 향후의 가치상승을 기대하고 장기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자들로 부터 가치투자라고도 불린다. 보유 기간은 주로 1년 이상이다. 이에 비해 단기투자는 기업가치보다는 기술적 분석에 따라, 단기간에 사고파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2~3일의 기간을 두고 매매하고 흔히 스윙매매라 불린다.

>>> 분석기법 종류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기본적 분석은 △PER △PBR △ROE를 분석하는 것이다.

기술적 분석은 △이동평균선, △MACD, △스토캐스틱, △RSI, △볼린저 밴드 등의 보조지표가 사용된다. 주가 도표는 하루 단위,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시가·종가, 고가·저가를 하나씩의 컨들에 표시하는 컨들도표가 많이 쓰인다.

>>> 주식투자 방법

주식투자는 진입장벽이 없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증권사 또는 은행에 방문해, 원하는 증권사의 계좌개설을 해야 한다. 그 뒤, 컴퓨터는 HTS, 웹드론은 MTS를 설치한 후 입금을 하면,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사 직원을 통해 전화 주문으로 거래할 수도 있으나, 수수료가 발생하니 그것을 고려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좋다. 또한, 주식투자의 수수료는 전자면제이며, 최근에는 수수료가 거의 0원에 수령하는 추세이다. 또 주식을 살 때는 매수, 팔 때는 매도라고 불리는데, 매도할 때마다 0.3%의 거래세가 자동 징수된다. (돈을 벌면 절반 세금은 자동으로 징수되는 주의해야 한다)

>>> 주식에 대한 편견

주식에 대한 편견으로 2가지가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장기투자만이 높은 수익을 가져오며 단기투자는 이익을 보기 힘들다.'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 인식은 사실과는 다르다. 과거에는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갔던 시기였다. 그러나 현재,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주식=도박=손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의 원인은 투자자들이 일계율 손해는 생각하지 않고, 육신만 부린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무턱대고 투자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손해만 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영석 교수(금융보험학과)는 위의 인식에 대해 "무턱대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투자대상을 세차히 조사하고 내인력을 가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빅자기 기자 wldy125@naver.com



△PER = 시가총액 / 당기순이익, △PBR = 시가총액 / 자본총액, △ROE = 당기순이익 / 자본총액

△이동평균선 = 주식시장에서 거래액, 매매대금 등의 합계로 나타낸 지표

△MACD = 이동평균선 사이의 관계에서 추세변화의 신호를 찾았으므로 전동자 지표

△스토캐스틱 = 주가 수익률이 일정기간 동안의 기준변동 속에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벡분으로 나타낸 지표

△RSI = 가격의 상승임과 하락임에 따른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낸 것

△볼린저 밴드 = 주가의 변동에 따라 상하밴드의 폭이 같이 움직이게 하여 주가의 움직임을 판단하고자 만들어진 주가지표

■ 주식 투자 짧막 조언 / 조영석 교수(금융보험학과)

투자할 대상의 전망을 보고 투자해야

주식투자란 고위험 고수익이다. 또한, 주식은 욕심내지 않고 인내를 가지는 것 이 중요하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본인 이 손해를 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저 본인이 산 주식이 내리가면 바로 팔아 버리고는 주식은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이 무턱대고 주식에 투자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의 원인으로 블립 투기 사건이

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파열 투기현상이다. 이는 과거 신기했던 블립가격이 급상승했다가 현재는 급격히 하락한 것이다. 이처럼 새롭고 혁신해서 가격이 오른다고 바로 투자할 게 아니라, 투자할 대상의 전망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실전 투자를 시도하기 전에 우선 모의 주식 투자를 해 보는 것이 좋다. 진짜 돈은 아니지만 그런 가상의 돈으로 미리 경험을 쌓는 것도 바람직하다.

■ 학우에게 듣는 주식투자 / 자연과학대 A학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

'주식투자를 하기 된 계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연과학대에 재학 중인 A 군은 "A군은 이동평균선을 통해 최소한의 상식은 알아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식은 고수익을 기대하는 것 만큼 높은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이익이 높을수록 손해도 많이 볼 수 있으므로, 본인이 투자할 곳에 자체해 조사해 김길비라니. 또 손해를 봤다고 판매할 게 아니라 인내를 갖고 기다리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기자가 만난 학우 / 이 의 진(생명과학과·16)

“자유롭게 경험하고 책임감 있는 청춘 만들어 갈 거예요”

이번 호 ‘기자가 만난 학우’의 주인공은 성자성과 미도를 한껏 뽐내며 목포대학교 홍보대사로 열일·열공하고 있는 이의진 학우(생명과학과·16)이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평범한 고교시절을 보내지 않았다. 제도권 교육이 아닌 흡수学堂으로 학업을 이어온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남들과 다소 다른 길을 걸어온 당찬 그녀를 목록 후문의 어느 카페에서 만났다.

〈면접주자〉



Q. 학창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A.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솔직히 항상 멀을 것 같고 다니고, 득기는 따로 없지만 ‘주어진 바는 일실히 하자.’ 그런 마인드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나 17살, 고등학교 원서를 앞두고 흡수学堂으로 학업을 전향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는 혼자서 공부를 하고, 경감고시를 봄서 목포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흡수学堂을 하게 된 계기는?

A. 아버지의 영향이 커어요. 당연히 집 근처 여고를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흡수学堂을 권유해주셨어요. 당시에 하기 싫은 공부를 얹으려 하기보다,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때는 집에서 놀 수 있다는 생각에 단순히 흡수学堂을 결정하게 되었죠(웃음).

Q. 흡수学堂을 하면서 어떤 공부를 주로 했나요?

A. 특별하게 잘하는 득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언어 공부를 좋아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악기에도 관심이 있어 피아노방 플루트를 주로 배웠습니다. 웃을 제작하는 일도 맛있어 보여 어머니와 함께 재봉틀을 배우려 다니기도 했어요. 흡수学堂을 하면서, 가장 큰 경험은 여행인 걸까요. 어릴 때부터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여행을 많이 다녔었어요. 일본, 몽골, 호주, 유럽(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여러 나라를 다니며 그곳의 문화를 배우고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웃음).

Q. 생명과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A. 큰 이유는 없었어요. 원래 문과를 지향해서 중국언어문화학과를 고려하기 했는데, 취업 전망에서는 이과가 낫다고 판단 했어요. 그래서 그냥 관심이 있는 생명과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학교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A. 학교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

니 홍보대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특히 첫 캠퍼스 푸어가 기억에 남아요. 작년 12월부터 대본을 외우고 연습해서 올해 4월에 첫 탐방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준비한 것만큼은 뜯어서 아쉬움이 컸는데요. 그 데도 귀빈 분들이 끝나고 잠겼다고 칭찬해 주셔서서 위안이 되어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Q.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A. “자유롭게 경험하고, 내 행동에 책임지지”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거나, 불건전한 것이 아니라면 뭐든 한 번씩은 해보고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요.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앞으로의 계획은 프랑스 여행과 결혼이 어요(웃음). 어릴 적 디디은 프랑스 여행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돌아보면 소재지 기록을 달랑 빼 한 적도 있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좋은 곳이 더 많았어요. 이 때문에,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택 하라면 프랑스를 항상 선택해요. 그래서 저

난달부터 여행을 가기 위한 적금을 들고 저축하고 있어요. 돈이 모이면 프랑스로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요. 20대 중반쯤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어요.

Q.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A. 다양한 경험을 즐기세요!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20대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보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리는 동시에 행동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즐길 수 있는 청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천슬 책임기자 chan.cs@naver.com



나만 틀리는 맞춤법

‘공기밥’, ‘공깃밥’ 무엇이 올바른 표기일까요?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에 흔히 ‘공기밥’이란 적힌 메뉴판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메뉴판에 ‘공기밥’이라 적힌 표현은 틀린 표현인 것 같아 디들 이라고 있나요?

‘밥상어’ 형식 과정에서 앞말이 울림소리(모음전부+ㄴ, ㄹ, ㅁ, ㅇ)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 울림 예사소리(ㄱ, ㄷ, ㅂ, ㅅ, ㅈ) 이면 뒤의 안울림소리가 원소리(ㄱ, ㄷ, ㅂ, ㅅ, ㅈ)로 밝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글 맞춤법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쓰는 ‘ㅅ’의 이름. 순우리말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이 가운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원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ㅁ’ 소리가 빗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ㅁ’ 소리가 빗나는 것 따위에 반芻이 적는다고 합니다.

‘공기·밥’의 경우, 앞의 말 ‘공기’가 울림소리인 모음 ‘ㅣ’로 끝나고, 뒤의 말 ‘밥’의 첫소리 ‘ㅂ’이 안 울림 예사소리인데 뒤의 예사소리가 원소리 ‘ㅂ’으로 바뀌어 [공기밥]으로 발음됩니다.

이처럼 ‘공기·밥’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앞의 말 ‘공기’에 반芻이 없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공깃밥’으로 적습니다.



나만 모르는 상식

»»랜섬웨어

2017년 5월 14일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언론에서는 연일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랜섬웨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

랜섬웨어란 납치된 인질의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미하는 웨어[ware]의 합성어를 밝힌다. 악성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로 해커가 컴퓨터에 담긴 중요문서나 파일 등을 암호화시키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인질로 잡은 후 이를 풀어주기 위해 비트코인 결제도 받는다. 최근 ‘워나크라’라 불리는 랜섬웨어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스펠메일, 악성코드를 함유한 광고 프로그램, 스팸스 링크 등을 통해 감염된다. 평균은 20달러부터 100달러까지 랜섬웨어마다 다양하며, 범죄자는 이영성을 대국화하기 위해 비트코인 결제도 받는다. 최근 ‘워나크라’라 불리는 랜섬웨어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더리움

가상화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시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약 800종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존재하고 있다. 그중 비트코인은 시가총액 약 20조 원으로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더리움이 5조 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외에 다른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을 들 수 있다. 이더리움은 소위 ‘스마트 계약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졌다. 스마트 계약이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활용하도록 확장했다고 보면 된다. 즉 비트코인과 달리 보험을 비롯한 신약, 채권, 은행 업무 등 활용 가능성이 투구된다.

비지용 기자 wldyd125@naver.com



심쿵! 이 영화 / '겟 아웃' (감독 조던 필레)

미스터리 스릴러와 사회적 이슈의 만남… 인종차별 여운

지난 5월 17일에 개봉한 미국 영화 '겟 아웃'. 'get out'은 미국 내 인종차별의 문제와 그에 얹힌 주인공 크리스의 모험에 대해 다룬다. 현재 국내에서도 다른 화가점이 많아지는 만큼, 또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번쯤은 생각하게 될 인종간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혹인 사진작가인 주인공 '크리스'. 여자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고 여러 가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여자친구네 가족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다양한 백인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크리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인다. "당장 거기서 나와! 널 세뇌시켜서 성노예로 쓰려는 거라고!" 전화한 친구에게 분위기 깨는 소리까지 들게 된다.

하지만 친구의 예상대로 최면에 의해 구속당하게 되며, 여자친구와 그녀의 가족은 크리스의 몸을 끄는 판매자였다. 또한 초대된 백인들은 시설, 코이글라(Coagula; 응고물) 수술을 통해 크리스의 몸에 자신의 의식이 깃들기를 원하는 메시지였다. 크리스는 자신이 구속되어 있는 의자에 솜을 끊고 자신의 귀를 물어뜯는다. 그렇게 최면을 피하고, 마침내 탈출을 강행한다.

영화의 분류는 호러, 미스터리, 스릴러. 실제로 영화는 뒤로 간수록 거칠어지며, 막바지에 이르면서 많은 피가 흐르게 된다. 주인공 가족은 모두 크리스에 의해 사살, 혹은 그에 초대하는 상해를 입게 되며, 마지막 장면에서 크리스는 자신을 속인 여자친구를 죽이지 못한다. 그 직후 경찰차가 달려오고, 그 안에서는 친구가 나오며 영화는 마무리 된다.

감독 조던 필레는 영화에 대해 "인종차별은 그 자체로 악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화를 한번 보면 "이게 단순한 인종차별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든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나온 인종차별을 다른 영화와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겟아웃'은 이전에 개봉된 인종차별 문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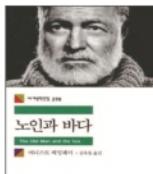
있다.

포털 사이트에 영화 '겟아웃' 혹은 '겟아웃 리뷰'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다. 다음 아닌 '미국 현지에서도 극찬한 영화. 신선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영화'라는 것이다. 사실 영화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알기 쉬운 내용이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복선은 과파하는 것도, 어떤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또한 알기 쉽다.

감독이 슬기로운 메시지는 코야글라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사회가 서로 엉겨쩔었을 뿐, 한 나라라는 틀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못한다"는 것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 조던 필레의 메시지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장 목포대학교만 봐도 유학생들의 국적이 다양해져 고 그 수가 늘고 있다. 한국 전제로 보면 문화적 차이 또한 많아지는 추세이다.

현대에 와서는, 다른문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또한 자연스레 다양한 인종이 서로 부대찌 것이다. 그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당연하지만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일부 백인들, 그리고 저항하는 한명의 흑인 이야기. 이 영화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박이서 기자 goodguyin77@naver.com

책 읽는 목포대 / '노인과 바다' -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는 어렸을 적부터 자주 들어봤거나 한 번쯤은 봤을 한 책의 제목이다. 그만은 유명하고 인강받는 책이지만, 나는 최근에서야 이 책을 읽었다. 책의 저자는 노벨 문학상과 풀리처상을 받은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미국 작가이다. 헤밍웨이가 지금의 명성을 가진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책을 풀어라 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노인과 바다'이다.

미국에서 60년도 더 전에 출판된 책이, 대한민국의 지역적·생물학적 특성인 나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이유, 그 저력의

풀리처상·노벨문학상에 빛나는 헤밍웨이 걸작 중의 하나 용기와 자기극복으로 죽음과 대결하는 인간 존엄성 그려

원동력을 나의 주관적인 차원에서 세 가지로 담겨보려 한다.

첫 번째로 놀라간다는 것, 노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는가? 혹은 관심을 두고 두었는가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간 우리 청년 세대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다.' 하지만 이 말에 수긍할 뿐, 공감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실제로 50살의 나이 차이를 둔 아버지와 변모집을 바라보는 스물셋의 긴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해왔다. 아버지는 월남전에도 참전하신 국가유공자이다. 하지만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하는 것과 소통은 별개의 문제이다.

세대의 격차가 너무 크고, 군대에서 숙달하신 수직적 의사소통 방식의 영향이 커지 때문인지, 이런 나의 시각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대화를 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책을 읽어 보면 노인에게 경roma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주인공에게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느끼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두 번째로는 노인의 굽하지 않는 생생한 부지름을 암축적으로 접제하며 전달해준다는 것이다. 노인은 꼬박 사흘을 밤을 새워 자신의 조각배보다 큰 침대 치와 사투를 벌인다. 그 과정에 꿀에 쥐가 나고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정신을 잃을 뻔한 위기도 몇 차례 겪는다. 하지만 노인은 청세치와 싸움에서 결코 물러나는 법이 없었다. 그럴지만 노인도 사람인지라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하고 편하게 잠을 청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시 의지를 갖다붙고 둘 중 하나는 끝이 나는 승부를 재개한다.

청세치와 팬란한 대결이라는 상황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 책의 진면목은 노인과 청세치의 싸움을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대입해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노인은 낚시 중 몇 번씩이나 몇 년 만 절었더라면 생각하고 아쉬워한다. 실제로 그는 잘 나가던 어부였지만, 시간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그에게만 비껴가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바다에는 그의 눈빛이 말해주는 그의 진짜와 의지는 끊임없이 불어오는 파도처럼 견재하다. 절대 자기합리화하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다. 이 부분을 읽으며, 몇 번이고 나를 다시 돌아보았다. 나는 지금 내 생애 가장 둔촌하고 에너지 있는 봄을 가지고, 연약한 갈대처럼 세상이 주는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는 자신이 늙었다고 별개를 대거나 물러서지 않는다.

이밖에도 노인과 바다를 읽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 하지만 주제에 많은 친구가 이겼을 때 읽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이 된 후 지금, 다시 읽어보는 노인과 바다는 본명 세롭게 다가올 것이다.

사설

이제 여름방학이다. 기말시험 보고 그동안 밀린 과제 내린 한 학기가 끝난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방학이라는 말도 들어도 마냥 즐겁더니 나아가며 더운수록 오히려 반려의 느낌이 더 커진다. 말할 필요도 없이 대학생은 성인이고 따라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어야 하므로 이제가 무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취업 문제에서 보듯이 우리 현실이 뉴트지 않아서 여간해서는 기본 마음으로 방학을 맞이할 수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도 한 학기를 마치면서 한숨만 쉴 수는 없다.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방학을 맞이하는 1학년에게는 더욱 그렇다.

먼저, 지난 1학기를 차분히 돌아보자. 내가 선택한 전공에 내 성격과 취향이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미 있게 할 수 있는지 짐작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무슨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여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또 당연히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한 학기를 지냈으면 내 성격과 능력에 내 전공이 잘 어울리고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 이 평가는 따로 방학동안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내 짐꾼이 더 발전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공 교수와 선배의 조언을 참고해 더 좋다.

방학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을 어떻게 알자고 보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1학년에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범화다운 방학을 맞이

방학을 맞으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긴박하다. 대학의 방학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유난히 긴 것은 대학생이 성인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제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시화하고 밀기 때문에 알아서 앞으로 삶의 주제으로 삶의 다양한 방법을 연습해보고 시간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계획도 없이 이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전공 영역의 광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전공 교수들이 다음 학기에 공부할 고재료를 봄에 들어가기 전에 서제나 예제나 방학 동안에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으로 몰려들고 싶다.

학생이나 교수님이 공부가 중요하지만, 꽃 그대로 꿈꾸는 것이 방학이기도 하므로 그동안 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에 마음껏 도전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행을 추천하고 싶다. 낯선 곳으로 품앗이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는 세상이 넓다는 것을 몸으로 인식하는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가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몸색하는 기회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행은 꼭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날 수 있다면 장거리 도보 여행도 도전해 볼 만하다. 여름이나 가을 텐트 하나만 준비하면 잠은 빠져나온다. 정원에 어울리듯 끊어진다. 땅에 있는 점자나 미술회 같은 것을 이용해도 된다. 멀집에 걸쳐 하루 종일 땅밭 속을 걸으며 땅을 훔쳤던 경험은 있을 수 있는 주제이며 자손에게 키우고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자산이 된다. 아무튼 집에 가만히 앉지는 말자.

이후조록 범학을 즐겁게 잘 보내서 가을에 개학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림글 칼럼

김정모<미술학과 대학원생>



현실을 살면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가끔 혹은 자주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빌미로 회의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순수'와 '응용'으로 미술을 구분하고 합니다. 여기서 순수미술이라면, 예술적 가치만을 위한 미술을, 응용미술은 실용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하는 (흔히)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처 기초과학과 융합과학의 구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이중에서 예술적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전위적인 논리와 이성들을 의해 미술의 영역과 형식이 과학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점차 그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적 가치라는 것이 단순히 미술관에 걸린 작품에서만 한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광공산품이나 쓰레기 속에서도 발견되기도 하는 반면, 반대로 반듯하게 미술관에 걸려있으나 예술적 가치구조는 거리가 먼 작품들의 사례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자 어울림성이 형식 속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밖의 여러 이유들이 기반이 되어 이와 같이 형식적 기준으로 예술에 대해서 손을 놓았던 그들은 그림을 구분하는 것은 점자 구사에서의 사고자고 부적합한 용어로 이야기되었고 이전보다 다양하고 넓은 영역으로 예술의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다'로부터 유래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모습'을 '마음 속'에 그리는 것이 '그리다'이고, '문자'로 그리는 것이 '글'이고, '선이나 색'으로 그리는 것이 '그림'인 것입니다. 이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글이나 그 밖의 본인이나 그려는 것을 표현한다는 행위에 상관없이 그림이고 예술이 된다는 밝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생각이 보편화되고 용인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예전에 비해 그 특별함을 알아버린 것 같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디카를 발달하면서 시각아이미지를 재생하는 역할을 잊어버리고,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뭔에 따라 굳이 붓을 들고 물감을 칠하지 않아도 미술이 되는 시대에 사람들은 왜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직접 미술을 하다보면 이러한 생각을 때문에 자주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고 바라고 그림을 그리다는 것은 대개 성장을 기대하기보다 이미 좌절 될 것을 전제로 꿈을 꾼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술을 하기 위해 서려는 행복으로 한국나이로 서른은 저의 지금까지 80년의 날짜를 놓지 못하는 듯합니다만 하여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수준에 도민도 않고 주위의 걱정없이 시선들을 받았습니다. 이런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상당히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만약 그림이나 예술활동들이 부자만 비파와 시간을 험실히 흡족했다면 지금보다 경제적인 생활의 질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람구수이야말로 행복에 대한 사람들은로부터 오는 시선에 계계 달을 때는 제 삶이 벌어졌을지도 같은 것 같아 수치스러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제 스스로가 무능한 것 같아 미워질 필요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저 스스로가 그림그리기를 그만 끝을 놓았던 것일까요?

한경의 <소년이 은다>를 봐보면 14세이지 즈음에 자신이 성장되는 느낌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학살이 자행될 흥구 앞에서 전수라는 인물은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양심이라는 힘의 심장을 통해 주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조금 다르지만 제가 예술을 하면서 받은 느낌 역시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현실에서 오는 거칠된 좌절보다 큰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들은 학자금대출이나 비정규직과 임금 88만원에 빠져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민족의 책임이 아님뿐만더니 혼자만이 차친 상황이 아니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개인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다면 꼭 저처럼 물건이 아니라도 펜이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김은혜 편집국장

펜소리

웃음 권하는 사회

셀리 브램프턴은 "우리는 모두 속으로 죽을 계획을 세우면서 웃고 유쾌하게 얘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 모두가 폐활한 모습을 보면 저마다이고 보편적인 레프트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우울증 환자를 고고립감을 느끼는 것"이라 했다. 이는 미처 죽음을 준비하는 노년층이, 자신의 진로에서 흔 열정사진을 웃으면서 죽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필자는 사람들이 '제마다'의 상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상처의 깊이와 크기는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어두운 표정인가? 아니다. 물론, 어두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밖에 웃는 사람은 또한 많을 것이다. 웃을, 인간이 가지는 표정 중 가장 밝은 것이 아닐까. 그런 만큼 사람들은 웃음에 쉽게 동화된다. 웃, 웃음바이러스라고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웃으면, 주위 사람도 함께 웃게 되는 그런 것 말이다.

사람은 김표현이 디자인으로 등룡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와는 웃을 감요다. 대체로 밟아지면, '웃지 않는 여자'를 들어보게 되는가. 이는 일종의 고정관념이었다. 과거에는 "여자는 웃어야 애쁘다."라는 말을 쉽게 했었다. 이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기막힌 시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남녀가 가질 것 없이 모두가 포함되며 웃을까. 예를 들어 '영업직은 웃어야 한다.'처럼 달이다. 일종의 편견이 아닐까.

햇볕 중에, '웃어야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다.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어야 한다면 당신은 웃을 수 있는가. 나로서

독자투고
안내

열린 신문, 열린 공간 목포대신문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기사 제보 및 독자 투고

전 화 : 010-6411-1608 / 이메일 : yan20@naver.com

목/포/대/신/문/사

■ 목포대신문사 창간 기념행사 Review

주체적·자주적 신문 기대

**선후배 한자리 따뜻한 격려와 함께 쓴소리도
창간 38년 신문사 명예·전통 오롯이 지켜내길**



목포대신문사는 지난 5월 27일 창간 38주년을 맞아 영광 백수 해안도로 인근 한옥펜션에서 창간기념일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한 형식 없이 선후배 기자들의 만남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화신(6기), 이진창(6기), 양은석(8기) 선배 등 신문사 출신 동문들이 참여해 1박2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올해 신문사에 들어온 수습기자를 비롯해 현역들과 선배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치러졌다.

지난 1979년 창간된 목포대신문사는 당시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학내 언론으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종이 신문이 대부분 그렇듯 단순 보도보다는 심층 취재와 기획을 중심으로 제작

하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창간기념 행사는 학내에서 진행되었으며 당일에 끝났던 것에 비해, 올해 행사는 1박2일로 열리 더 많은 선배들이 참석해 따뜻한 격려와 조언 등 의미있는 행사로 치러졌다. 토론 시간에는 주로 현 신문사의 구조와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선배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박정규 41기 수습기자 대표는 “이풀동인 많은 선배들을 만나 대화를 통해 경험담과 조언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러한 행사는 가족속의 선배들과의 의미있는 만남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서 기자 goodauvin77@naver.com

후배들의 다짐!



신문사에 입사한지 어느덧 3년이 돼간다. 수습기자로 시작해, 정기자, 부국장… 그리고 지금의 자리까지.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나의 학교생활은 전부 신문사인 듯하다. 졸업 후에 이 곳에서의 기억이 가장 선명할 것 같다. 사실 이런 말하기 부끄럼지만, 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러나 이왕 맡은 것, 기꺼이면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파이팅! 신문사.

편집국장 김은희(15-정치언론총보)



언론에 관심이 있어 지원한 신문사에서 활동한지 2년이 넘었다. 학우들에게 공감이 되는 기사가 쓰고 싶다는 나의 다짐이 2년이 넘은 현재까지 꿈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 너무 아쉽다. 남은 기간 동안 독자들에게 공감되는 기사를 반드시 써 보고 싶다. 또한, 수업과 과제에 밀려 교육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2학기에는 교육부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교육부장 정기영(15-정치언론총보)



1년 동안 무탈하게 수습 기간을 거쳐 마침내 수습 짜리를 펼쳤다. 내가 큰 사고(?)를 치지 않았다는 점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신문자를 겸임하는 것이, 작년 수습 때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며, 1년이 넘어가다 보니 오기가 생겼다. 한 우울한 파라다이스였던 옛날, 내가 두 마리의 토키를 잡게 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정기자 박지용(16-불리학과)



보람찬 대학 생활을 보내기 위해 신입기자로 들어온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신문사 정기자라는 역할을 맡게 되어 디소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제 끝 들어온 신입기자들에게 선배로서 어울리는 모습과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또한 선배들을 본받아 앞으로 목포대신문사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는 기억에 남는 기자가 되기 위해 분발할 것이다.

정기자 박지용(16-불리학과)



목포대신문사 창간기념 행사에서 들었던 선배들의 여러 가지 조언들이 뇌리에 남는다. 예전에는 신문사 일상을 희망하는 학우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수습기자들이 대폭 줄었다. 목포대신문사 기자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 또한 기사를 쓰고 독자들에게 나의 기사를 읽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좋은 기사를 발굴하고 쓰기 위해 끝임없이 노력하겠다.

수습기자 박정규(17-불리학과)



객원기자로 목포대신문 제작에 참여하면서 교양 콘텐츠 또는 기자가 만난 학우 부분을 맡고 있다. 선후배 동문을 비롯해 목포대학교의 출용한 인재들을 일일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꿈을 개척해가는 학우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양질의 인터뷰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또한 목포대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

객원기자 이천슬(15-무역학과)



지난달 27일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한 곳으로 유명한 영광 백수해안도로 인근 한옥펜션에서 목포대신문사 창간 38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백수해안도로 일출.

선배의 한마디!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시쓰는 후배들 보고 싶어”

목포대신문사 한역들이, 수고가 많구나. 조금 덜 괜찮은
쉽게 밥을 끼네 끊게.

우선, 현 신문사는 윤심이 너무 없는 것 같구나. 좀더 다양한 방향과 깊이 있는 이야기 거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학교 안에서만 활동하는 너희의 모습이 조금 아쉽구나. 제작비와 인원의 문제로 힘든 것도 있을 테고 말이야. 기사는 공부가 우선이란다. 너희 학우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맞출지 잘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미지막으로 주제적이고 자주적이게, 강하게 성장하는 신문사를 보고싶단다. 목포대신문사를 외부에서 힘들 수 없게끔 말이야. 특별히 지금의 시스템이 나쁘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매력이나 힘이 있는 것 또한 아니잖니. 이점 기억하면서 꼭 과이명하고! 너희가 하고싶은 것, 또는 잘하는 것을 찾으렴. 신문사 후배들 말고도 목포대를 다니는 모든 후배님들, 정말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하나를 목심내서 과고들이 보세요. 재미가 없을테아 않을 수가 없어요.

조상원(불리학과 87)

목포대신문사 제11기 기자·조사부장